

# ESCO 시장 침체, 반전되나?

## ESCO Market

ESCO 시장이 침체기를 맞는 것일까?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거듭해오던 ESCO 시장이 올해 주춤거렸다. 2007년 10월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추천액기준)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ESCO투자사업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이를 통한 에너지절감량 또한 지난해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정부차원의 'ESCO 혁신방안' 이 발표돼 향후 ESCO 시장 판도변화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 \_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 ●●지원금액 '비슷', 절감량은 '절반'

올해 10월 현재 ESCO사업에 추천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1266억5800만원(82건)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지난해 156건의 1332억6600만원과 비교할 경우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사업 건수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또한 에너지 절감량도 비교해보면 올해 절감량은 8만310toe로 지난해 절반 수준(13만 6778toe)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SCO 각 분야별로 봤을 때도 지난해에 비해 사업건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다.

조명분야가 48건에서 20건으로 줄어든 반면 지원액은 지난해 62억1100만원에서 70억58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를 통한 절감량도 지난해 5098toe에서 5833toe로 증가했다.

특히 열병합발전과 동력설비, 공정개선의 사업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열병합발전의 경우 지난해 26건의 사업에 348억 4700만원이 지원돼 1만2098toe의 에너지를 절감했지만 올해 10월 현재 6건의 사업에 347억4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를 통한 에너지절감량도 5981toe에 그쳤다. 사업건수와 에너지절감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지원금액은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에 많았던 공동주택 열병합발전 분야가 적격 심사 기준의 영향으로 올해에는 1건밖에 추천되지 않았으며 열병합발전의 경우 병원과 산업체 등 용량이 큰 규모(추천액 100억)의 사업에 주로 추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동력설비 분야도 지난해 14건의 사업에 103억2200만원이 지원돼 1만9946toe의 에너지를 절감한 반면 올해에는 5건의 사업에 37억3500만원이 지원돼 5450toe의 에너지를 절감할 전망이다.

공정개선 분야는 올해 32건의 사업에 555억8300만원이 지원돼 3만451toe를 절감해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했다. 그러나 공정개선 분야가 지난해에는 45건에 661억4900만원이 지원돼 8만6328toe를 절감한 실적을 보면 이 역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

올해 ESCO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474억원으로 12월 말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한 4분기 추가 접수가 마

무리 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관계자는 "업계자금이 인출 중"이라며 "올해 12월 말이 돼야 정확한 자금지원현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ESCO협회가 집계한 자체투자실적 인정 건수는 41건으로 총 금액은 184억1200만원이다. 자체투자실적의 경우 조명과 전기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규모가 큰 사업으로는 폐열회수와 열병합이다.

## ●●ESCO 자금지침 큰 변화 탄소펀드 활용 추진

올해부터 바뀐 자금지침과 산자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ESCO 혁신방안'이 내년에 정착되면 ESCO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금지침 개정에 따르면 신청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인 히트펌프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금 신청 최소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ESCO투자사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3:7 비율이 적용되면서 대기업 자금이 조기 소진된 것을 감안해 2007년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4:6으로 조정됐으며 대기업은 8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로 차등 지원됐다.

아울러 ESCO 특정 업체의 과다지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개 업체당 300억원의 지원한도를 설정했으며 ESCO 동일투자지당 지원규모도 기존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ESCO사업자금의 일시소진을 예방하고 특정업



▶ 지난 9월 열린 'ESCO 혁신방안'에 대한 산자부와 ESCO업계 간담회 모습



▶ 국제 탄소펀드 시장 워크숍

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접수분을 일괄 검토해 업체별로 지원액을 조정했다. 따라서 자금 추천을 개시한 당일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을 막고 선착순 추천을 폐지, 한 분기 단위로 접수 후 평가 추천될 전망이다.

ESCO사업의 상환기간도 ESCO 전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존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사업 설비별 투자회수기간이 다소 차이나는 점을 감안해 전기설비의 경우 5년 이내, 열설비는 10년 이내로 각각 이원화시켰다.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도 조정됐다. ESCO사업으로 소형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만족시킨 사업에 한해 자금이 지원됐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ESCO 혁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 내용을 보면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좋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올해 80%에서 2012년 50%로 점차 축소해 민간자금 활용을 유도

키로 했으며 기존에 대·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체계를 매출실적,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4단계로 세분화해 정부지원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두 번째는 ESCO분야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로 에너지자원분야 인력양성센터를 활용해 에너지진단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중장기 ESCO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토록 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기관 기술인력 교육과 연계한 ESCO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대적으로 ESCO 실적이 저조한 대학교 및 군부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ESCO사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국제 ESCO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2차 ASIA ESCO협회 심포지엄'의 국내 유치 노력과 ASEAN 등 동남아 국가 CDM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 온실가스감축시장에 국내 ESCO의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474억원으로 책정됐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도 내년에는 17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ESCO사업 중 전력수요관리설비, 에너지절약형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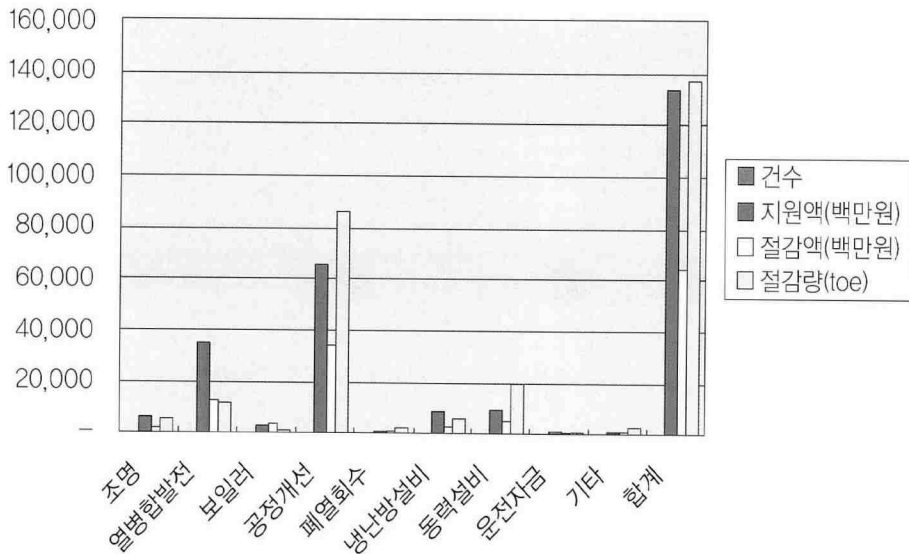
사용설비 및 전기대체 냉방시설에 대해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탄소펀드도 ESCO 분야에 활용된다. 산자부는 ESCO 성과보증계약방식으로 추진하는 폐 열회수, 공정개선, 열병합발전 등 CDM 사업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탄소펀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ESCO

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권이 ESCO 매출채권 취급을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ESCO 매출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쉽도록 ESCO 표준계약서를 수정·보완토록 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

2006년도 ESCO자금 추천액 실적 및 효과



2007년도 ESCO자금 추천액 실적 및 효과

